

KNSI 코리아포럼 요약

제목 :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동향

- ▶일시 : 2006년 6월 2일 (금) 19:00-22:30
- ▶장소 : 프레스센터 석류실
- ▶참석 : 사회자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발표자 (정창현, 민족21 편집주간)
토론자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자 (이정철,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참석자 (코리아연구원 연구진, 자문위원, 이사(감사)진, 초청 인사)

※코리아포럼은 연구자-정책결정자-관련 전문가들이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장입니다.

문의 : knsi@knsi.org
www.knsi.org

사단법인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박순성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동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겸 제 2회 코리아포럼을 열게 되었다. 그럼 정창현 박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정창현

1. 한미일 관계

현 동북아 정세의 기본 흐름은 다극체제로 변해가는 중간지대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재조정해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5월 3일 민주평통 간담회에서 ‘독자적으로 가면서 독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사이’ 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봤을 때 너무 수순이 보이는 행보를 하는 것이다. ‘이중전술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한미FTA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같은 한미 외교현안들을 대폭 양보함으로써 남북관계에 큰 판을 한번 벌여보겠다고 하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과정에 관계 재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 물론 동북아 시대의 이수훈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 줄 수 있냐’ 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는 점차 미국 주도에서 다극체제로 가고 있다.

2. 북중관계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국제상품 전람회를 본 사람들은 전람의 80% 정도가 중국 제품인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우려했다. 내각의 해운 국장, 철도 국장 같은 북쪽의 당국자들은 나진항의 2년 독점권을 중국에 줬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인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것이 북한의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통일거리시장은 중국제품이 거의 장악하고 있고 북한 제품으로 경쟁력 있게 시장에 나가 있는 것은 평화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봄향기> 뿐이다. 북중 경제문제는 북한이 정치적 자주성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기 때문에 동북4성론 등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냥 좌시하고 있기엔 문제가 많다. 북한 당국은 2005년, 2006년부터 중국기업의 SOC투자를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합작기업이 독자적으로 북한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 때문에 합영 형태로 들어와서 북한 시장에 그것을 파는 형태가 앞으로 일반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중국인 사장,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모란봉 자전거가 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남한이 진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품이 경쟁을 해서 이기면 상관없는데 과연 북한의 내수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첨단수준이겠는가. 전람회에 태국의 록슬리그룹이 가지고 온 것은 전화기나 핸드폰이 아닌 생필품, 화장품이었다.

북한은 기간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에게 다른 사업에 진출할 경우 우선권을 준다. 여기서 국가표준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와 스웨덴의 합작 다국적 기업인 ABB는 몇 년 전 한 개 군을 샘플로 전기 노후 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을 했다. 그들은 왜 몇 천 만 불이 드는 사업을 했을까. 북한은 관용차로 사용되는 벤츠를 폐기할 경우 평화자동차의 대당 3천만-3천 5백만 원인 새로운 모델의 <준마>로 바꾸고, 다른 관용차들도 다 평화자동차 생산 승용차로 바꾸고 있다. 평화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지금 연간 수백 대 수준이지만 앞으로 북한 차 노후화 속도를 보고, 북한 당국이 독점권만 일정하게 약속해 준다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전기 현대화 사업 상당부분을 ABB에게 맡긴다면 나중에 남북한 통합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사업자가 대북 진출을 하려 해도 대부분 중요한 개발권을 중국이 선점할 우려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서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정 부분은 남한의 대북투자를 유인하려는 북한의 의도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멀리 봐야한다.

3. 남북관계

열차시험운행 중단이 군부의 반발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북한의 남북관계 담당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남쪽에 두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는가. 개성공단은 지금 첨단 사업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단계인데 현재 냄비 만드는 수준이고 핵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 하지만 남한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미국의 요구 때문에 남한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확신이 없다. 철도 시범운행 무산도 이런 정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한이 돈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한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비료, 식량, 경공업 지원은 이미 정리됐으며 약간 축소될 지라도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근본문제는 서해안의 해상경계선, 국가보안법 등을 뜻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엔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북한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작년부터 우려되는 것은 북한 당국이 강경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하반기 남북관계에서 강경기조로 계속 가거나 아니면 경제 개혁개방 2단계 조치를 발표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여름 이후 2단계 경제개혁조치 발표가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확신할 순 없지만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으며 다만 어느 시점에 발표하고

어떤 형태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남북관계 기조는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참 큰 현안인데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DJ측과 우리 정부 측의 얘기가 다 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DJ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 6자회담에 나오라는 주문, 핵문제 빨리 해결하자는 얘기만 하다오면 과연 북측이 그 주문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미국하고 얘기해 보니까 최소한 이 선까지는 자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북측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설득, 그리고 북한의 양보에 걸맞은 정치적인 부분과 실리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DJ에게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없고 현 정부 역시 보증할 역량이 있겠는가. 형식부터 개인자격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DJ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뭘 얘기 할 수 있는지 또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DJ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방북을 돕겠다는 입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를 활용해 남북관계 돌파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고 상황을 진전시키는 실효성 있는 협상 내용과 의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

4. 북한의 동향

북한경제가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풀리지 않고 있다. 전력문제, 자신들이 세운 동력해소 3개년 계획,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2007년까지 쌀 800톤 생산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2003년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북한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고 이 고민들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차 중국과 경제교류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남쪽과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현상이다.

북측은 2002년 특히 2003년 이후 세 분야의 계획을 했고 올해엔 10년 만에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된 지표들이 현실에서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평양 주변 공장들의 내부 목표는 1989년 수준의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풍작이었던 작년보다 1.3배 내지 1.5배를 해야만 1989년 수치가 근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모내기가 이상기온으로 열흘정도 늦춰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쉽지 않은 목표를 세운 셈이다.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서 애초에 세운 계획과 목표들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못함으로써 경제 재건과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 최근 정세의 변화 움직임

북한은 3월 7일 리근이 뉴욕에 가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풀리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 브레진스키나 키신저 같은 전통적 보수대표자들이 네오콘과 일정한 거리두기에 들어가고, 대체로 ‘협상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 는 기조를 보이고 최근 미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6자회담과 분리해서 혹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다. 반면 북한은 금융제제를 풀지 않으면 일체 안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여있는 자산을 풀어야 나오고 미국을 신뢰할 근거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제제를 풀지 않으면 북한은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 異論과 提言

최근에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지속될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더러 북한의 체제전환 시도를 포기하라고 한국이 설득하기는 해야 하지만 여전히 힘에 부치는 게 사실” 이기 때문에 “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한 더 빠른 길은 북한에게 미국에 먼저 양보하라고 설득하는 길” 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여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북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북한의 생각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2002년 미국에 대대적인 유화조치를 했다가 미국이 핵무기 문제를 제기하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겪은 경험이 있다. 자신들이 낮은 자세를 취하면 미국은 더 강한 자세를 취했다. 북한이 양보하면 미국의 강경 기조를 더 강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다. 때문에 경제 2단계 개혁 조치를 고민만하고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먼저 양보하라는 주문에 “그것은 미국의 몫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북한의 반응인 것 같다.

또 “북한은 설령 6자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3년 버티기'를 고집하기 보다는, 외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시 물러날 때까지 3년만 버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낙인 찍혀서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충고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결국 미국이 양보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생각으로 버틸 것이다. 물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접촉, 협의와 미국을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을 시

도할 것이다.

“최근 미국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를 나타내고 있고, 북미 직접대화와 ‘별도포럼’ 이 가시화된다면,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예상보다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미국의 성의 있는 조치에 이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 라는 주장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려서 6자회담과 평화체제 포럼을 별도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계속된 말 바꾸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공은 현재 북한에 넘어가 있다’ 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아니다’ 를 떠나서 북한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는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한다” (5.9. 몽골), “마음을 열어야 한다.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가 되는 길은 가슴을 열고 대화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옳은 방법을 찾아야 하고, 모두가 선택하기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5.3. 민주평통) 등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예민하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왜 대통령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말은 맞다. 전략적 선택을 잘 해야 한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런데 뭘 하려는 전략적 선택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발언을 앞세우는 것은 북한의 불신을 키우고 미국에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지난번 장관급 회담에 가기 전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특히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 방식을 제안할 생각” 이라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을 북한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돈으로 해결 하겠다” 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실제 일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면 북한이 받기 대단히 어려운 제안이 되어 버린다. 정부가 정경분리, 즉각적인 상호주의 안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상호주의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매개로 북한을 나오게 만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철도문제도 대북지원만 많이 하면 북

한이 나올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진행된 것인데 북한에 돈을 주는 만큼 북이 그것에 합당하는 것만큼 나올 것이라는 명제는 맞다. 그러나 다른 명분에 포장이 돼서 이루어져야지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면 북한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인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느 지점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북한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많이 해야 한다. 중국이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분들이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 상호주의 발언을 해서는 곤란하다. ‘중대 제안’ ‘물질적 지원’ 등 전제조건이 붙은 말로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면 불신만 누적된다. 그리고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일정수준 이상으로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북한이 올 초 노선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논의하기 꺼리는 NLL, 국가보안법, 방문지 제한 철폐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민 정서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장관급 회담에서 핵문제나 6자회담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오고 있다. 가능하다면 장관급 회담에선 이런 문제들은 간단히 얘기하고 남북관계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해야 한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와 북한이 정치적인 양보를 하는 것을 자꾸 연결 지어서 얘기하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자꾸 연동을 시키려고 하면서 남북관계는 불안정하게 되었다.

박순성

북한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바라봐야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그런 말씀이었다. 두 분 토론자는 너무 심각하게 토론하지 말고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김연철

정창현 선생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약간 달리 보는 면도 있다. 나도 6자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것은 공이 어디 있느냐가 아닌 북미관계에서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그 점에 대한 나의 의견은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언론 보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 혹은 ‘포괄적 대북전략’ 이라고 명명된 미국의 대북 전략 보고서를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다. 4월 미국에서 만난 외교안보 관계자는 리군의 미국 방문 때 재무성에서 “어떻게 검사가 범죄 사실을 범인에게 설명해줄 수 있느냐” 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브리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대신 6자회담 관계자는 재무성 브리핑에 참가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북한의 기대와 미국의 판단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4월 도쿄에서 있는 비공식 6자회담 대표 회동에서 힘이 보여준 태도도 여전한 분위기를 전해주었다.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해석하는 방식은 미국 신문에서 평화체제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전략변화가 아니냐는 해석이 부분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정책이 아닌 장기적 시각에서 미국의 대북·한반도 전략이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강경한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 보다는 동유럽 체제전환을 이끈 국무성 내의 동유럽과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전략에 대한 장기 전략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방식도 현재의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워싱턴 내부의 논란의 핵인 이라크 문제 해법이나 이란 문제, 북한 해법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란은 어차피 미국에서 이란을 때릴 수 없고 때렸을 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스가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부시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을 조금씩 열고 있지만 북한은 다르다. 여전히 부시행정부는 대북 적대적 무시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오히려 인권 문제는 더욱 강도 높게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6자회담에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DJ의 방북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DJ의 방북을 둘러싼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다. 현재 정세 속에서 DJ의 방북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통일방안논의는 안 된다는 발언은 경악스러울 정도이다. DJ의 통일 주제 강연은 전혀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상식적인 판단을 보여준다.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전제조건을 달아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10~20년 걸리고 이때 통일 1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DJ 통일 논의의 핵심이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DJ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에게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통일 방안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인식이나 노태우 정부 이후 우리의 일관된 통일입장과 전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관계자의 입장표명은 이해하기 힘들다. DJ방북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사실 작년 6.17 면담이 성사됐을 때는 들고 간 것이 있다.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 Mr. 김정일 발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더 많은 인듀스먼트(유인)를 제공할겠다는 부시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중대제안이 나왔다. DJ가 6자회담에 참가하라

고 김정일을 설득할 때는 작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고 경제 문제가 아니라도 뭔가 보따리를 들려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주 소중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면 이후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움직인다.

다음 경협전략에 대한 정창현 선생님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한다. 우리의 현 경협전략은 거점전략이다. ‘개성공단이라는 협력 거점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것의 성공을 통해서 거점을 확보한다’는 전략인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떤 공장도 모두 중국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KCC, 김책공대, 인민문화궁전 모든 컴퓨터가 중국제다. 북중 경제협력에 대해서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산 설비나 중국산 소비제가 갖는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산업표준, 기술표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패턴 역시 문제이다.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최소한 5년, 10년이 걸리는 동안 북한 내의 핵심 경제지역인 평양 혹은 남포를 북한이 경계심을 갖든 중국의 의지가 없든 중국제가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핵심경제지역에서의 고용효과가 북한경제에 갖는 산업기반으로서의 의미는 5년 10년 동안 방치해 둘 문제가 아니다. 협력거점도 필요하지만 핵심경제지역에서 점을 찍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민간기업의 개척정신에 의존하면 백전백패이다. 대안천선유리공장은 상징성을 갖는다. 북한경제에서 고용효과가 크거나 남북경제협력에 상징성을 갖는 몇 개의 기업에 전략적으로 진출해 보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과 상업성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반관반민 공사 같은 것이 있었다면 경공업 지원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현재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쉽다. 앞으로도 기회는 많다. 경협전략에서 빠뜨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남북관계에서 고민되는 것은 남북관계를 유지·관리해나갈 필요성과 다른 한편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신뢰를 다질 필요성의 상충이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만 하더라도 원칙과 신뢰에 방점을 두면 쌀, 경공업 지원, 철도운행 전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국내 여론과 남북관계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국면적인 선택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순성

다음 이정철 박사님 말씀을 듣겠다.

이정철

북중관계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숫자상으론 무역적자가 많지만 중국 쪽에서 변경 무역에 대한 혜택이 다 사라졌다. 논란이 많지만 연변자치주 상무부 사람을 만나보니 변경무역에 대한 50% 할인은 세관에 냈는데 실제 들어와서 다시 지방세로 50%를 마저 걷어가더라.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북한 물품을 수입할 때 물건의 단가나 수량을 줄여서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금은 보따리로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준다. 숫자로 볼 때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은 줄고 중국의 대북수출은 관세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통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나진항 개발권 협상의 조건은 올 연말까지 56Km 도로를 훈춘에서 나진까지 깔아주는 조건으로 3호 부두의 사용권을 얻는다는 계약으로 올 말까지 도로가 안 깔리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한다. 현재 우리 말을 하나도 못하는 중국 사람이 들어가서 측량을 해서 북한은 56Km라고 말하고 중국은 48Km라고 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 3호 부두는 바람 불고 태풍이 불면 못 쓰는 쓸모가 없는 부두라는 의견도 있다.

박순성

오늘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미관계를 테니스나 탁구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된다. 고도의 전략게임인데 공이 아닌 다른 것에 비유해야겠다. 북한 남한 미국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해석과 약간의 바람, 전략적 사고 방식은 다 엷혀있다. 이야기를 쭉 해보면 북한이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이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전략적 선택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드러난다. 오늘은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도 교환했고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온 북한 관련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들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특히 정창현 선생님 감사하다.

2006/06/02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